



PAGE2011

‘정보디자인의 신시대’ 내걸고 최신 경향 선봬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한 PAGE2011 전시회가 인쇄·미디어업계의 최신 DTP를 비롯하여 IT솔루션·크로스미디어와 관련된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DTP 관련·MIS/JDF·디지털프린터·크로스미디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들 부문이 전체 전시회를 이끌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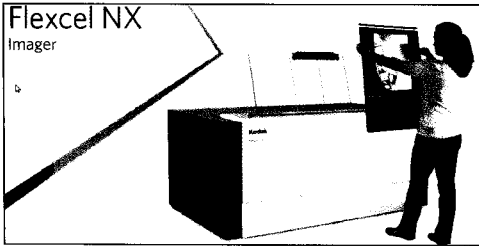
PAGE2011에서는 ‘정보디자인의 신시대’를 전체 테마로 내걸고 ‘PAGE2011에 오면 반드시 무언가 얻어가는 것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콘셉트의 전시·컨퍼런스·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의 방향성을 제시한 기조 강연에는 2일, ‘전자서적에 의한 편집, 제작,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시아적 규모에서의 전자서적을 생각한다’를 시작으로 3일에는 ‘전자서적의 저항세력과 추진세력’,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지역활성화비즈니스로서의 인쇄산업’이 이어졌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전자책으로 대표되는 거센 IT바람과 거대한 흐름이 된 전자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방안, 장기불황에 빠져 있는 일본 국내경기의 부양을 위한 고민 등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모았

다. 일본인쇄기술협회측은 PAGE2011 전시회에는 최종 집계 결과 7만3720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으며 최신 트렌드를 선보였다. 관람객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1200여 명이 증가한 것이며 개막 첫날을 제외하면 둘째날 2만6420명, 마지막 날에는 2만9540명에 달했다. 각종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참여한 수강자는 35개 섹션에서 2058명에 달했다. 출전사는 136개사였으며 참가부스 규모는 550개였다. 다음번 전시회는 2012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도쿄도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선샤인빌딩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PAGE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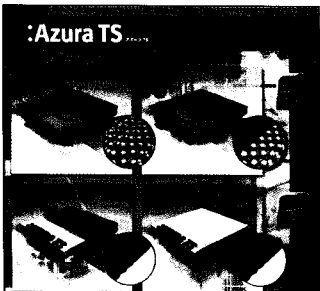
일본코닥, NX 디지털 후렉소 시스템 등 출품



일본코닥은 Flexcel NX 후렉소 시스템을 선보였다. 그라비아인쇄와 동일한 인쇄 품질을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CTP시스템은 NX시스템은 고속의 이미징과 명쾌한 프리프레스 프로세스로 생산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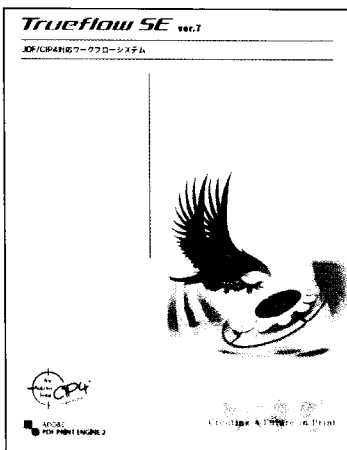
내쇄력이 향상되었고 셋업이 용이할 뿐 아니라 내구성 뛰어난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Flexcel NX 시스템의 장점이다. 일본코닥은 패키지인쇄에도 뛰어난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 반복작업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어 고객들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프셋인쇄와 동일한 분판기술을 사용하는 NX시스템은 최대 300 lpi의 해상도를 보여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며 10미크론의 최소 도트를 보이고 있다.

일본아그파, 디지털워크플로 제품군 전시



일본아그파는 이번 전시회에서 고객사들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워크플로 제품군을 선보였다. 아그파는 어포지 프리프레스 7을 비롯, 아즈라 TS 등은 친환경적인 작업은 물론 간단한 조작으로 지능을 갖춘 전자동작업을 구현해 기존 작업에 비해 대폭적인 생산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이니폰스크린제조, 가치를 창조하는 인쇄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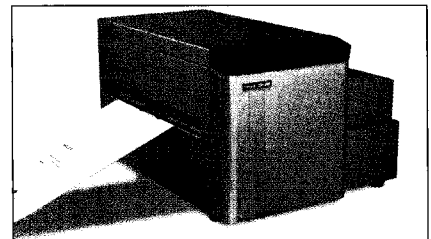
다이니폰스크린제조는 이번 전시회에 '가치를 창조하는 인쇄'를 테마로 참가했다. 다이니폰스크린제조는 미래를 지향한 잉크젯인쇄기와 CTP워크플로 부문에서 최신제품군을 선보였다. 특히, CTP와 POD를 포괄하는 워크플로 'EQUIOSNET'를 중심으로 'Trueflow SE 7.2' 등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회사 측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전자서적에 대응하면서 고객사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그래픽스사, 모바일 인쇄 솔루션 선배



글로벌 그래픽스사는 기술적으로 큰 진전을 보인 모바일인쇄 솔루션을 선보였다. 인텔 프로세스와도 호환이 가능하게 개발된 모바일인쇄솔루션은 드라이브가 필요하지 않은 모바일인쇄를 실현시켰다. 프린터드라이브의 인스톨이나 인터넷 접속이 없이도 오피스 문서, 화상파일, PDF를 편의에 따라 직접 인쇄할 수 있다.

미쓰비시제지, 친환경성 강화한 CTP TDP-459 출품



미쓰비시제지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성을 크게 강화한 TDP-459를 출품했다. 일본인쇄학회로부터 기술상을 수상한 TDP-459는 단색 120선에 적합한 각종 매뉴얼, 회보지, 전단지, 가격표 및 학교와 회사의 내부 배포물 등의 인쇄물작업을 할 수 있다. 인쇄물의 수량이 많아 POD인쇄로 비효율적인 작업에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서멀디지털프린터인 TDP-459sms 1204dpi/120pi의 단색인쇄시장을 겨냥해 개발되었으며 독자적인 기술을 융합해 보다 간단한 기능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장점이라고 미쓰비시제지는 소개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